

1983년, 11월 서울의 서빙고동 중앙정보국 소속 분과 취조실, 지하 107호실,
한 개의 책상, 두 개의 의자, 방안 한가운데 백열등 하나, 사방이 벽,
그 한 벽에 커다란 거울, 구석에 욕조. 그 속에 물이 삼분의 일쯤.
남과간첩 나타샤가 고문을 받고 있었지요.
그녀는 의자에 묶여 힘 빠진 목 위, 두 눈에 힘을 주고, 입을 열어 대답 대신 소리만 냈다
지요.
그녀는 모진 고문에도 김일성 주석에 대한 열렬한 충성심과 당에 대한 자부심으로 이를 다
이겨냈지요.
빨갱이, 독종, 김일성 그놈의 창녀, 공산당의 개. 고문하던 존슨과장이
다섯 번째 같은 소리를 내지르니,
그 옆의 테일러차장이 비실비실 웃기 시작했다지요.
존슨과장, 테일러차장은 옆 옆 옆 옆 방에서 TV 드라마를 보던 스펜서과장, 포드대리를 불
러서 아주 큰 소리로
이제 때가 되었다.
이를 악문 나타샤의 신음은 음률이 있었다는데
네 남자들의 벌어진 입에서 쏟아진 신음은 리듬이 있었다지요?
1983년 11월 8일 밤10시 23분, 네 남자는 전라의 나타샤의 몸에 동시에 정액을 쏟아 냈다
니다.
실로 놀라운 타이밍이니 이는 국가를 수호하는 이들의 국가에 대한 불타는 사랑이자 적국에
대한 분노로 가능했겠지요?
하얀 나타샤의 몸이 번들거리기 시작하자 그곳의 네 남자는 당황하여
바지춤을 움켜쥐고
어쩔 줄 몰라 했고,
나타샤는 자신의 변모된 모습보다 방안의 악취로
그녀의 마음은 텅텅 비게 되었습니다.
아마도 그녀는 그때 숨을 거두었다는데 그녀의 눈앞에는 김일성 주석이 활짝 웃고 있었고
웅장한 음악이 그 뒤에 들렸다지요.
1983년 11월 이후,
나타샤는 사라지고, 나타샤가 앉아 있던 의자도 사라지고, 서빙고동 취조실도 없어졌지만,
그 의자를 덮고 있던 순결한 이 타월은 여전히 남아 있어요.
나타샤의 땀과 네 남자의 정액과 대립의 공기가 섞인
이 타월은 여전히 우리 곁에 남아 있어요.